

사회

혼잡시간 피하고 하객접대 여유롭게

저녁 결혼식 자리잡는다

결혼문화 신평속

#1 광주 한 사립대 대학원장인 박모(60)씨는 지난 주말 오후 5시에 딸 결혼식을 치렀다. 딸과 사위가 오후 늦은 시간을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박씨에게 "다른 음식과 곁치지도 않고, 예식장을 가느라 하루를 다 허비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2 중견 중소기업의 사장인 최모(63)씨도 다음달 가을 아들 결혼식을 오후 5시로 예약했다. 몇 달 전 오후에 치러진 지인 결혼식을 다녀와서 예식이 풀린 점심 시간 전후보다 늦은 시간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최근에는 점점 장을 돌리면서 주위에서 "차라리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최근 사람들이 붐비는 주말 점심 시간 무렵을 피해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결혼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사회 지도층

토요일 오후 5시~6시

'夕食예식' 선호 경향

25일 광주지역 예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예식 '골드타임'(낮12~오후1시)을 피해 오후 4~6시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문의하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1건에 불과했던 '석식(夕食) 예식'이 최근에는 매주 치러질 정도로 붐비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또 최근에는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주 한 호텔의 경우 지난 5월에 이미 연말까지 오후 시간대 예식이 모두 예약됐고, 광주시 서구의 한 웨딩홀도 매주 오후 6시까지 예식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역 예식업계에서는 평균 10건에 1~2건꼴로 '석식 예식'이 치러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골드타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과 많이 겹칠 뿐더러 밀려드는 차량으로 예식장 일대가 마비돼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가한 늦은 오후의 경우는 느긋하게 예식장을 찾을 수 있다.

또 최근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취업해 한창 일해야 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우 대부분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면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힘든 세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석식 예식'의 경우 정오 무렵에 치러지는 결혼식보다 하객이 많다는 것이 예식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은 세대일수록 석식 예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식업계 관계자는 "다소 늦은 시간이나 저녁에 결혼식을 올리는 고객들에게는 예식장 장식비 등을 할인해주고 있다"며 "다른 업체에서는 식사 비용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발암물질 검출 농심라면 전량 회수

식약청, 벤조피렌 기준 초과 스프 사용 6개 제품

보건당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25일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스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전량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회수 범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회성 식약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추가 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쓴 라면을 회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이날 오후까지도 라면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었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입

장을 바꿨다.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스오부시(가다랑어포)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제품의 스프를 식약청이 조사한 결과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이상 봉지라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용기면)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검출 농도가 건강에 해를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검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농심 역시 문제의 원료를 폐기했을 뿐 이미 유통된 라면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

/연합뉴스



가로수 은행 수확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25일 전년대 정문 앞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북구는 열매 판매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방침이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Seoul, Gyeonggi, etc.) and a 7-day weather outlook. It includes columns for region, wind direction, wind speed, and temperature ranges.

"학급감축 등 송원학원 제재는 부당"

법원, 시교육청 상대 소송 원고 승소 판결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5일 학교법인 송원학원이 "학급감축 등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적 제재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시교육청이 오는 2013학년도부터 송원학원 산하 송원여고를 대상으로 단행하려 한 학급감축은 물론 송원초등학교, 송원고등학교 등에 대한 제재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15일 송원학

서남표 KAIST 총장

내년 2월 23일 사퇴

이사회 의결.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내년 2월23일 총장직에서 물러난다. KAIST 이사회는 25일 오전 서울

성인 대상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

양형기준 대폭 강화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강도강간(7~10년) 등 모든 성범죄의 형량이 최소 1~2년에서 최대 3~4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위는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가중요소 고려 시 현행 9~1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특별양형인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경요소인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양형위는 우선 강제추행·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일반강제추행(현행 기본구간 징역 6월~2년), 친족·주거침입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

한달 30만원 이상 못한다

앞으로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한달에 30만원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또 1번의 게임에서 걸 수 있는 돈이 1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됐고,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웹보도(고스톱·포커류)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은 고스톱이나 포커류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용한다 제한이 없는 법령 미비점을 이용해 불법 환전상들이 성행해왔다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이 규정은 다음 달 중으로 행정고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The 36th Jirisan Piagol Vally Maple Festival'. It features a colorful illustration of a woman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standing in a field with falling leaves. The text includes the festival name, dates (2012.11.3 - 4), and a detailed schedule of activities for November 3rd and 4th, such as maple leaf picking, music performances, and food events. It also list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sponsors.